

공지사항

1. 다하우 순교자 행진 및 덕원 순교자 기도회 안내

* 일시: 2026 년 9 월 26 일(토)

* 일정

- 오전 11 시: 다하우역(Dachau Bahnhof) 집결 후 강제수용소 기념관까지
도보 행진(약 2~3km)

- 오후 1 시 30 분경: 덕원 순교자들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는 기도회

- 오후 2 시경: 미사

2. 외국인 공동체 미사

뮌헨 프라이징 대교구의 여러 외국인 공동체가 함께하는 미사가 봉헌됩니다.

• 일시: 9 월 27 일(주일) 오후 6 시

• 장소: 뮌헨 주교좌 성당(Frauenkirche)

이날 오후 3 시 본당 미사는 봉헌되지 않습니다.

3. 견진성사

• 일시: 10 월 4 일(주일) 오후 3 시

•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 대구대교구 교구장

4. 예비자 모집

선교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톨릭 신앙에 관심이 있거나 세례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성당으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분의
예비자를 주님께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선교와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교리 개강: 10 월 11 일(주일) 오후 1 시

• 장소: 공동체실

.



뮌헨 한인 본당

Koreanische Katholische Gemeinde München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교중미사 15 시 2026 년 9 월 20 일 ■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제 1 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1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2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3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4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5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6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7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 8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9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Ⅲ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 L-39

형제 여러분, 31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34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35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36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37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39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환호송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